

에너지 수요전망에서 짚어야 할 점

대전대학교 교수 / 이창기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년도 에너지수요전망에 의하면 국내 1차 총에너지 수요는 2억 3천 710만 TOE (석유환산톤)로 금년도 총에너지 수요인 2억 2천 890만 TOE보다 3.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수요는 올해의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인 4% 보다도 둔화될 것이며, 이는 지난해의 국제고유가로 연료가격 인상이 에너지 수요에 잠재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고유가 지속이 에너지 수요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석유제품 가격인상 효과와 난방용 석유수요의 감소가 반영되어 올해보다 0.4% 증가, 원자력은 내년도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서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NG수요는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14.4% 증가, 석탄수요는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 증가로 3.7%, 수력은 2.6%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최종 에너지의 수요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증가율은 산업활동 증가에 따라 2.3%증가, 수송부문은 고에너지가격의 유지로 3%증가, 가정, 상업, 공공부문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2.6%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증가하는 총에너지 수요 전망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이 에너지 수요부문과 잘 연계하여 진전된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의 중점과제를 에너지 수요부문이 잘 반영함으로써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여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도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이 곧 닥쳐 올 기후변화협약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